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1. 15.(금) 17:00 (총 5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전 주 기상 지 청 관 측 예 보 과	담 당 자	과 장 김 회 철 전 문 관 양 석 종
		전화번호	063-249-3240

전북 월요일 출근길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
- 18일 새벽~낮 전라북도 눈
 - 전북내륙 최대 5cm
 - 18일 아침 강한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- 주말(16~17일) 또 다시 추위,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
 - 전북 동부내륙 아침 최저기온 -5℃ 이하
 - 수도권·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에 대비 필요



[1월 17일(일)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- 전주기상지청(지청장 김병춘)은 이번 주말(16~17일)동안 추위가 찾아오고 18일(월)에 전라북도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 특히, 18일 출근 시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.

[기압계 전망]

- 전주기상지청은 16(토)~18(월)일에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서쪽의 온난한 공기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다. 이 과정에서 눈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전북은 18일에 내륙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.
 - 15일(금) 밤부터 몽골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, 찬 공기와 따뜻한 해상 사이에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겠다.
 -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북서해안은 17일 새벽~오전에 눈이 내리겠다.
 - ※ 전북서해안: 1~5cm
 - 17일 오후~18일에 찬 공기의 유입이 약해지면서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겠고, 이 따뜻한 공기가 기존(15일 밤~17일 오전)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겠다.
 - 특히, 18일 아침에는 북서쪽에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에 의해 눈 구름대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이러한 기압계 변화가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 16~18일은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, 기상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.

[18일 눈 전망]

- 18일에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 - 18일에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눈 구름대가 더욱 발달하여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눈이 내리겠고,
 - 눈 구름대가 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전라북도는 낮에 눈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특히, 18일 아침에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더욱 발달하는 전북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5cm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하였다.
 - 전주기상지청 예보관은 “월요일 출근길에는 눈이 강하게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겠고, 쌓여있던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지역이 많겠다.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 - 특히, 18일 새벽~낮에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말에 계속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통해 최신의 예상 적설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.

<예상 적설, 18일 새벽(03시)~낮(15시)>

- 전북내륙: 2~5cm

[추위 전망]

- 15일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6일 전북은 아침 최저기온이 15일보다 5~10℃가량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
-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전북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 아침 최저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져 추운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.
 - 특히, 16일 오후에는 전라북도는 0℃ 내외로 머물겠고, 17일 아침에는 복사냉각이 강한 전북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.
 - 또한, 16~17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℃가량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- 18일은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를 것지만 밤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한 차례 더 유입되면서 전북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20일(수) 오전까지도 아침 최저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져 추울 것으로 전망하면서,
 - 수도관과 계량기를 보온재로 감싸는 등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- (강풍) 16일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북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강한 바람(초속 8~14m, 시속 30~50km)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,
 - 찬 공기의 유입이 다소 약해짐에 따라 17일 오후~18일 오전에 바람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겠지만 이후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며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20일까지도 강풍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
- (풍랑) 15일 밤에 서해남부북쪽먼바다를 시작으로 16~17일은 서해남부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~4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또한, 17일 오후에 서해남부해상의 물결이 일시적으로 잔잔해지겠지만 이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질 수 있겠다며 해상안전에 지속적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